지도, 궁핍했던 유년시절의 매혹적인 '시집'

또 다른 세계를 꿈꾸게 했던 상상력의 보고…
그 시절 세계의 중심이던 베오그라드, 부다페스트, 그리고 히말라야

최성각 | 소설가

"지리부도! 가슴에 안았을 때 그 뿌듯했던 무게. 얇지만 산수책이나 자연책의 두 배가 됨직한 판형. 파헤쳐진 더덕보다 더 진했던 잉크냄새. 바다는 푸른 색이었고, 얕은 땅은 흐린 황토색, 높은 땅은 짙은 갈색, 그 사이로 등고선이 똬리를 틀고 있었고 한복판에는 숫자가 찍혀 있곤 했는데, 그게 해발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새학기에 처음 나만의 지리부도를 가지게 됐을 것이다. 그건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였다. 의무교육은 지금 생각해도 괜찮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공부를 잘 하는 애나 맨날 뒷자리에서 졸기만 하던 애들을 가리지 않고 방학책이나 지리부도를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이다. 예방주사를 맞히려고 팔뚝을 걷게 한 뒤, 모두 복도에 줄을 세운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었지만.

"이건 6학년 때까지 쓰는 책이므로, 잘 간수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담임선생님은 틀림없이 덧붙였을 것이다. 우리들 귀에는 그런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제대로 들어올 리 없었다.

하지만 지리부도를 그때 난생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누나의 지리부도를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왼쪽 발 안쪽을 벽으로 삼아 땅바닥을 온몸으로 붙잡고 앉아 있는 딱지를 다른 딱지로 호되게 내리쳐서 뒤엎어버리는 '딱지치기 놀이' 때, 지리부도를 부욱 찢어서 접은 딱지는 스스로는 잘 뒤집혀지지 않았고, 바닥의 다른 딱지들은 기가 막히게 잘 뒤엎곤 했다. 접힌 등고선 가장자리에 보풀이 일 때까지 지리부도를 찢어서 만든 딱지는 최초의 신뢰를 배반한 적이 없었다. 성미 급한 내 친구는 지리부도를 받는 날, 바로 딱지를 접기도 했었다. 지리부도로 접은 대장딱지. 그립다.

지리부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한다. 가슴에 안았을 때 그 뿌듯했던 무게. 얇지만 산수책이나 자연책의 거의 두 배가 됨직한 판형. 파헤쳐진 더덕보다 더 진했던 잉크냄새와 아름다웠던 색깔. 바다는 푸른 색이었고, 얕은 땅은 흐린 황토색, 높은 땅은 짙은 갈색, 그 사이로 몸을 오므린 새끼뱀처럼 이해하기 힘든 등고선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등고선 한복판에는 코딱지만한 숫자가 찍혀 있곤 했는데, 그게 해발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소년이 배우지도 않고 알겠는가. "야 임마, 이건 그냥 원래 여기 찍혀 있는 거야. 묻지 마." 옆자리의 제법 탐구적인 친구의 질문에 짧게 답했을 것이다. 그 탐구적인 친구가 후일 지리학과에 진학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연두색은 평야였다. 실낱같이 푸른색은 강이었다. 그 실지렁이 같은 강에 배가 흐르고, 고기가 산다는 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바다의 색깔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 간단치 않았다. 대륙붕이라고 해서 근해는 옅은 하늘색이었고, 점점 깊어지던 푸른색은 마침내 심해에 이르러, 검푸른 색깔이었던 것이다. 지리부도의 기본색은 푸른색이었다. 바다가 1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난 소년은 심해의 짙은 푸른색을 보면서 그곳에 꽁치와 오징어가 담겨 있고, 고래도 드문드문 담겨 있고, 만화책에서 본 지느러미를 세운 상어도 숨어 있으리라는 것을 아주 잠깐 몽상했을 것이다. 심청이 생각은 그러나 안 했다. 심청은 '황해바다 나라'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보물섬이나 외다리 애꾸눈 선장도 지리부도에서 떠올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소년이 좋아하는 꽁치, 고등어, 오징어, 갈치를 떠올렸고, 명태도 조금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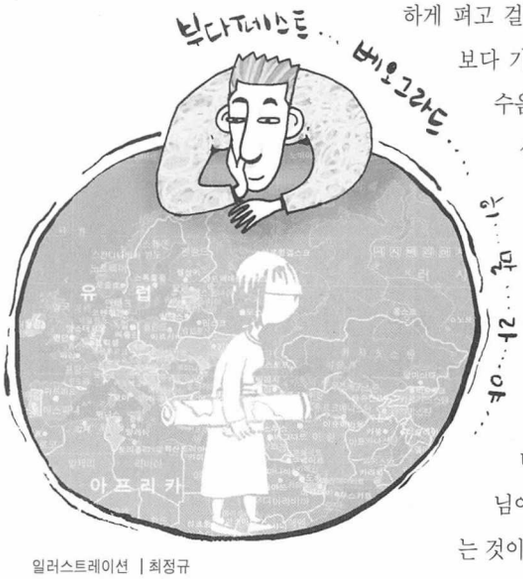
하지만 지금 다소 급한 마음으로 60년대 중반의 지리부도를 떠올릴라치면, 지리부도의 그 색깔들이 왜 그렇게 다소곳하고 연한 빛이었던가 궁금하다. 의무교육을 시켜야 할 아이들 모두에게 배포하기에는 나라 살림이, 잉크가 넉넉하지 않았을까? 부드럽고 흐릿한 컬러인쇄. 꼭 써야 할 곳만 색을 쓴 것만 같은 편집. 중간중간에 먹을 쓰면서 편집자가, 나라살림하는 사람이 안도했을 것만 같

은 지면들을 그때, 내가 정확히 느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어떤 페이지에는 '세계의 인종'이라고 꼬마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나란히 서 있기도 했다. 어떤 사내녀석은 치마를 입고 있기도 했다. 계집아이들은 인형처럼 생겼다. 턱이 많이 나오고 돌망치를 든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도 그곳에 정주하고 있지 않았던가 싶다. 갈 수 없는 적색 괴뢰의 땅 개마고원과 무산, 압록강 철교, 정읍은 농산물집산지, 경주 불국사와 첨성대…를 그곳에서 배웠다. 북한괴뢰의 나라, 그곳 땅 밑에서 무연탄과 철강이 난다는 사실은 가끔 시험문제에도 나왔다. 곤혹스럽고 난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딱지로는 무용지물인 어떤 페이지는 절대로 이해하고 싶지 않은 도표도 있었고, 그곳에는 고지식하게도 연간강수량, 기온, 그리고 세계의 수도 따위들이 나열돼 있었다.

감동적인 교과서, 지리부도가 특히 우리를 매혹시킨 것은 어쨌거나 얼핏 보기에, 읽고 외워야 할 글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책을 바라보면서 물고기를 생각하게 한 지리부도를 그래서 나는 '유년의 시집'이라고 생각한다. 그만 해야겠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지리수업은 중학교에 입학하고부터 시작됐다. 지리선생님은 갓 대학을 졸업한 처녀였고, 단신이었다. 걸을 때 발끝이 안으로 모아졌다. 소년은 그 여선생님의 슬리퍼까지 기억한다. 슬리퍼 뒷굽이 높았다. 단신의 처녀가 지니고 있던 깊은 콤플렉스를 소년이 알 리가 없었다. 처녀 여선생님이 둘이었는데, 다른 처녀는 국어선생님이었다. 단신이라 말할 수 없는 그녀는 지리선생님보다 짧은 치마를 즐겨 입었고, 가슴을 꼿꼿하게 펴고 걸었기 때문에 지리선생님보다 가슴이 더 큰 여성이었다. 수음을 할 때는 그래서 지리선생님보다는 가슴이 크고 다리를 더 많이 노출한 국어선생님을 떠올리곤 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춘기 소년들이 자신을 떠올리면서 수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국어선생님이 알고 있을 것만 같았다는 것이다.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지리선생님은 수학자처럼 허리마저 다소 굽었는데, 늘 옆구리에는 귀퉁이의 올이 풀어진 말린 세계전도를 들고 있었다. 지리선생님은 전도를 칠판 한쪽에 건 뒤, 그날 배울 오대양육대주 중의 하나를 필기체 영어로 써놓곤 했다. 그래서 Africa, Asia, India 같은 단어는 영어시간이 아니라 지리시간에 배웠다.

특히 몇개의 도시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았다.

그것은 '베오그라드'였다. 얼마 전 무혈시민혁명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다 한 독재자가 밀려난 유고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나는 잊을 수 없다. 이유는 없다. 어린 소년은 나지막하게 '베 오 그 라 드' 하고 발음하면서 그곳이 왠지 세계의 중심인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아무에게도 내색한 적은 없다. 40대 중반이 넘은 지금까지 나는 아직 가보지 못한 내전의 땅, 베오그라드를 조용히 발음해보곤 한다. 그리고 지금도 소년 시절 뜬금없이 그렇게 생각했던 '세계의 중심설'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옴마니밧메훔'이 아니라 내게는 '베오그라드'였을 뿐이다. 어떤 소녀에게는 '스와니강'일 수도 있다. 이 별에 이런 지명이 있어서 남몰래 때없이 발음할 수 있는 기쁨이 내게 있다는 것이 다만 경이로울 뿐이다. 내 경이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도시는 '부다페스트'였다. 한 건축가가 한 여인을 사랑했다. 여인은 가장 가까운 친구의 아내가 됐다. 친구가 이 세상을 합법적으로 떠날 때까지 사내는 여인을 사랑했다. 마침내 미망인이 된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나이 들어서야 그들은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념이었다던가. 다리를 놓았다고 한다. 건축가의 다리 때문에 '부다'와 '페스트'가 마침내 연결되고, 연결된 도시는 '부다페스트'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다. 지명에 얽힌 이야기가 조금씩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상관없다. 뒷이야기가 중요하다. 여인과 결합하고 보니, '아니어서' 건축가는 후일 권총자살을 하고 만다. 부다페스트를 잊지 못하는 까닭이 거기 있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히말라야 이야기. 내가 우연히 만났고 기회만 되면 그곳에서 짐승처럼 자주 뒹굴었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인연 속으로 빠져들 히말라야는 맨 나중에 할 숙제처럼, 가슴 속에는 신비롭게 자리잡고 있었지만 표를 내고 내색할 지명은 아니었다.

지리선생님이 갑자기 고개를 조금 숙이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여기 교실 바닥을 직선으로 뚫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있지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요즘은 개그맨도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지리상식. 그러나 나는 지리선생의 안짱다리만 바라볼 뿐이었다. 지리시간이 끝난 뒤, 눈덮인 대관령을 바라보며 소년은 '아르헨티나는 고사하고 대관령을 언제나 넘어볼까, 나도 서울에 가 볼 수 있을까' 중얼거리곤 했다.●